

## “금강산 개발앞서 문화재 보호”

조계종, 통일부·현대 등에 공문...3월중 공청회도

조계종은 5일 통일부와 문화관광부, 현대 측에 '금강산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 제하 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공문에서 "현대 측과 정부가 금강산 개발의 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자연환경과 불교문화유적 보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 못박고 "개발계획에 앞서 불교문화재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의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은 금강산 일대 2백27만여평에 2003년까지 약 1조5천6백65억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모텔, 온천장 등의 숙박시설과 골프장 스키장을 포함한 레저 스포츠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조계종은 "금강산 일대는 불교문화재와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는 우리문화의 보고이며 현재 표훈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8곳과 국보급 유물 2점을 비롯한 많은 불교문화재가 있으며 6·25 동안 등의 혼란기에 손실된 많은 문화재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종합개발 계획은 개발이란 명분으로 불교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조계종의 우려다. 조계종은 공문에서 "불교문화재 발굴 보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은 금강산 개발과 관련한 불자 공청회를 3월 중에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조계종은 금강산 지역의 문화재 및 유물 보존 방안과 바람직한 개발 방향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연태 기자 (yilim@buddhapia.com)



**고산스님 재활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5일 서울을 앞두고 10일 국립재활원을 방문 한 자들을 만나 "자신의 지극 모음을 불행이라 생각하면 끝없이 불행해 지고 희망을 가지면 행복해 진다"며 "부처님의 기피로 패용될 것을 굳게 믿으라"고 당부하며 재활훈련 기능장비를 기증했다. 스님은 이어 노인 요양시설인 성남 자광원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하고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 “수행 본분지켜 화합-안정 이루자”

조계종 10일 을 중무계획 발표

조계사 일대가 재정비되고 중무관련 여론 수렴 기구인 중무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0일 오전 10시 '99년도 중앙중무기안 중무계획'을 발표했다. "출가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고산스님은 "부처님 정법에 입각하여 화합과 안정의 기초 속에서 중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계종의 주요 중무계획은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중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총무원은 종책자문위원회

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재가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행중심의 승가상 확립을 위해서는 승가교육체계의 재정비를 △포교전법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신도회의의 정상화를 약속했다. 또 △대사와 활동의 다각화와 전문화 △중도중심의 서비스 행정 실현 △중무영정 전산화 및 불교정보화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불교 총본산(불교종합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

고산스님은 조만간 조계사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일연태 기자 (eje@buddhapia.com)

## “정화회의 조속한 시일내 해산하라”

조계종 3원장 성명발표...본사주지회의도 한목소리

조계종 총무원장은 정화회의의 의가 조속한 시일내에 각종 소송을 취하고 정화회의의 해산하지 않을 경우 통도사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연, 포교원장 정현스님은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교구본사 주지회의도 11일 회의를 갖고 "종단본규의 중심사찰인 통도사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율스님과 정화회의의 고소고발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본사주지회의는 부의장에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선출하고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일연태 기자

설 연휴로 24일자 신문 쉽니다 - 212호 3월 3일자 발행



△한국불교태고종 제16세 총정 덕암 대종사 추대법회가 9일 신촌 불원사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ygbo@buddhapia.com)

## “중도 화합 국난극복하자”

9일 태고종 덕암종정 추대법회

태고종 제16세 총정 덕암스님 추대식이 9일 신촌 불원사에서 봉행됐다. 역대종정과 선조사에게 중정 추대를 고하는 다례의식에 이어 봉행된 추대법회는 어산종정 스님들의 종사이론 의식과 개척선언, 명종, 의식발문, 종정약력보고, 추대법요식 등으로 봉행됐다. 덕암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금강가사와 비로한, 주장자, 불자 등의 전수법을 봉정 받았다. 또 인공스님이 추대사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3당 대표 등이 축하를 했다. 이날 추대식에는 운계 승정,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한 태고종 주요 간부스님과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성호 진각종 총리원장, 박상규 국민의회의 연동회

장, 박철원 자민련 불자회장,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김광삼 현대불교신문 사장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취임 범위** 천진자상이 사람이다 다 구족하니(天眞自性悟具足) 신심이 청정하면 곧 공문에 들게된다(信心清淨即入門) 사부대중이 보살행을 받들어 행하면(四衆奉行菩薩行) 다함께 백우에 당하여 바른 불도에 함께 노닐게 될 것이니라(共遊白牛遊道). 잘!(喝) 중도는 화합하여 우리 불교를 재건하고(和合再建我佛道) 국난극복에도 우리가 앞장서자(國難克服是我等)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27일 오후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일시: 2월 27일 오후 7시(1회 공연)  
△장소: 서울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출연: 청룡사 불광사 갈상사 묘각사 조계사 청년회 인천보명사 중앙불교, 진각 합창단, 수원포교당 합창단, 중앙대 남성합창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유승엽씨('선음악 혜초' 오키나와 연주)  
△공연·예매 문의: 진각종 문사부 (02)913-0753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주최: 대한불교 진각종·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btv·BBS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 http://mall.buddhapia.co.kr

문화관광부  
2월의 문화인물  
**혜초**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

문화관광부 신청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 기념 음악회**  
“음악으로 찾아가는 혜초스님의 발길”  
2월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혜초스님의 달'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구비승으로 중국밀교의 정통 맥을 이은 혜초스님은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면서도 그동안 스님의 구비행적과 사상이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월 혜초스님의 달을 맞아 대한불교 진각종과 현대불교신문사는 오천축국을 여행하면서 부처님의 자취와 그곳의 역사 풍물 등을 기록으로 남긴 위대한 한국인 혜초스님의 발길을 창작 국악교성곡으로 찾아냅니다. 시인 장지현 정사의 가사에 젊은 작곡가 김희경씨가 작곡한 국악교성곡 '혜초'는 불교계 연합 합창단 250명과 남성합창단 30명,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 혜초스님을 기리는 이 음악회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혜초스님 구법의 생애 그린 감동의 무대**  
27일 오후 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일시: 2월 27일 오후 7시 (1회 공연)  
장소: 서울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작곡·지휘: 김희경  
출연: 청룡사 불광사 갈상사 묘각사 조계사 청년회 인천보명사 중앙불교, 진각 합창단, 수원 포교당 합창단, 서울대 남성합창단, 유승엽씨('선음악 혜초' 오키나와 연주)  
협연: 중앙국악관현악단  
공연·예매 문의: 진각종 문사부 (02)913-0753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공동주최: 대한불교 진각종·현대불교신문사  
후원: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불교종단협의회·BBS·btv



■혜초스님(704~787): 신라시대의 고승,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에서 밀교정통을 연구한 승려, 인도 여행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 당시 인도등 중앙아시아의 불교 언어·정치·풍속·생활상등을 알렸다.